우리의 사명, 복음 전파

28 희생

요 12:20~33
찬송가 364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찬양 73장 (들어주소서)

오늘 배울 말씀

1.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주님께서 치르신 희생을 압니다.
2.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는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의 수고와 희생이 반드시 필요함을 압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 ] 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 ]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 ] 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 ] 을 미워하는 자는 [ ] 하도록 보존하리라 (요 12:23~25)

말씀을 이해하기

초대교회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 시간과 물질뿐 아니라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희생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공회에서 주님을 증거하고 유대인들을 책망하다가 자기 동족들에게 돌에 맞아 순교하였습니다. 그의 희생은 훗날 사울이 회개하는 데 큰 역할을 했으며,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사도들 역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온갖 희생을 치러야 했고, 옥에 갇히고 매를 맞는 것은 물론 죽음까지도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복음을 위해 희생할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께서 먼저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그들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까지는 예수님의 희생뿐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구원을 받고 난 후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복음을 위해 어떤 희생을 치러야 할까요? 우리 시대에는 과거와 같이 복음을 전하다가 투옥되거나 순교 당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먼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수고와 희생 없이는 복음이 전파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조그만 수고와 희생이 요구될 때에 우리가 혹 물러서거나 희생하기를 꺼린다면 아직 복음을 깨닫지 못한 우리 주위의 소중한 영혼들은 영원히 잃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한 알의 밀알처럼, 복음을 위해 우리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공과말씀 정리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기 (암송)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 12:24)

"Most assuredly, I say to you, unless a grain of wheat falls into the ground and dies, it remains alone; but if it dies, it produces much grain. (Jn 12:24)

1. 말씀에서 핵심이 되는 단어 혹은 구절에 밑줄을 그어 보세요.

2. 한 알의 밀이 죽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말씀에 맞게 내 생각 바꾸기

1. 사도시대에 자기 동족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한 스데반 집사의 마지막 기도문을 적어 봅시다(행 7:59~60).

2. 내가 구원받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은 앞서간 그리스도인들의 수고와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앞서간 그리스도인들과 우리 가까이에서 나를 예수님께로 인도한 분들의 이름을 적고, 감사의 말을 적어 봅시다.

내가 알고 있는 앞서간 그리스도인	
나를 예수님께 인도한 분들	

3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값진 선물은 무엇인지 적어 보고, 함께 교제해 봅시다.

4 한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그리스도인의 희생이 따릅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 희생하고 있는 일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적어 봅시다.

말씀을 삶에 적용하기

	오늘의 말씀 (말씀 쓰기)	오늘의 기도 (감사 / 회개 / 간구)
일	시 116:12	
월	막 10:45	
화	요 15:13	

수

롬 12:1

목

고전 5:7

금

갈 2:20

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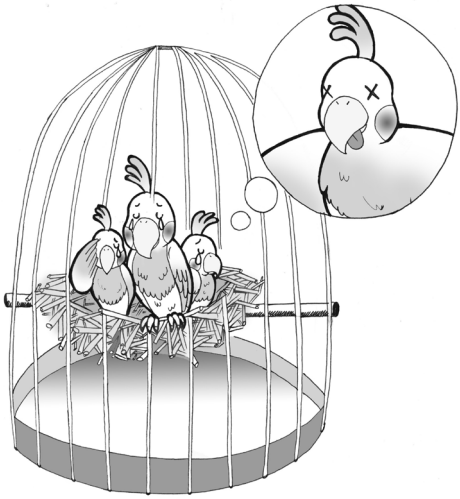
계 2:10

어미 새의 죽음

아주 추운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아파트에 사는 어느 한 가정이 새 한 쌍을 선물 받았습니다. 집주인은 새들이 신선한 공기와 햇빛을 받으라고 매일 아침 새장을 베란다에 걸어두었다가 저녁이면 들여오곤 하였습니다. 그동안 새들은 자라서 부부새가 되었고 암컷은 어미 새가 되어 알을 품더니 예쁜 새끼 두 마리를 낳았습니다. 새끼들은 새장 속에 만들어 준 둥지에서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주인은 베란다에 새장을 걸어 둔 것을 깜박 잊고 영하의 날씨에 밤을 그냥 보내 버렸습니다. 아침에서야 그 사실을 깨닫고 허둥지둥 나가 보니 이미 어미 새는 둥지를 몸으로 덮은 채 얼어죽어 있었습니다. 자기 실수로 가여운 생명을 잃었다는 생각에 집주인이 가슴을 치며 죽은 어미 새를 집어 들었더니 얼어죽은 어미 새 밑에 새 한마리와 새끼 두 마리가 살아 있었습니다. 어미 새가 자신의 몸으로 둥지를 덮은 채 얼어죽으면서까지 남은 생명들을 사랑한, 기막힌 희생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어미 새는 차가워지는 자신의 주검을 의식하며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도 반드시 이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줄 알리라" (요 13:34~35)고 말씀하셨습니다.



질문 있어요~

7년 환난 전에 성도들이 휴거된다는 성경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도 환난을 통과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7년 환난 중반기나 마지막에 있을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휴거(携擧)가 있을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이는 성경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7년 환난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리시는 진노의 심판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성도들을 이 진노의 심판에서 건져 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도 진노의 심판을 통과하게 하실리가 없습니다. 또 성경에서 이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살전 1:10)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살전 5:9)

하나님께서 환난 전에 그리스도인들을 하늘로 올리실 것은 노아의 홍수 사건이 있기 전에 에녹을 산 채로 하늘로 올리신 것에서도 예시(豫示)해 주셨습니다. 에녹은 심판 전 휴거될 그리스도인들을 대표합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휴거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서, 어느 날에 주님이 임할지 알지 못하므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매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매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더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마 24:40~44)

만약 7년 환난의 중반기나 환난 끝에 휴거가 된다면 깨어 있으라고 말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언제쯤 주님이 오실지 예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7년 환난 전에 그리스도인들이 휴거될 것을 확실히 믿을 수 있습니다.